

1) 데칼로그 (1) 두 번째 돌판 (출애굽기 32:1~9)

① 설교요약본

a. 선생님 사진 없는 졸업앨범

최근 졸업앨범에 게재된 사진, 개인정보 등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선생님들의 교권침탈에 대한 우려적인 시선을 보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인간극장에 나왔던 한 이웃을 향한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며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물건과 같이 대우하는 물질주의적 세상의 세태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 속 건강한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준, 십계명을 주목해보려 합니다.

b. 왜 십계명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의 자유는 얻었지만, 아직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의 자유는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가지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구속에 매여있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감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자유를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위한 말씀이기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계명들은 명령이 아닌 상호소통하는 언약의 형태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런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십계명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c. 왜 출애굽기 34장을 먼저 공부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을 올랐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교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채 다 가기도 전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내고는, 이 아무말도 없는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흥청망청 지냅니다. 그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께 모세는 민족을 위한 간청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돌리게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모세는 이들의 패역한 모습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부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아닌 34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이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패역한 이들 앞에서도 그 화를 드러내지 않을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d. 두 번째 돌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한번 주신 십계명의 돌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가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이 모세의 고백을 돌아보며 앞으로 십계명을 함께 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파편적인 자유의 찌꺼기에 취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혜세드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